

산업보안 개념의 비판적 고찰

이창무*

〈요 약〉

산업보안 관련 연구는 지난 10여 년 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보안 관련 학회가 만들어지고, 대학에 산업보안학과가 신설되면서 산업보안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 또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반면에 학문적 체계화의 기초가 되는 이론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개념화를 비롯한 이론적 바탕에 대한 고민 없이 특정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실무적인 해결 방안 제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대부분 연구에서 산업보안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보안 연구 대부분이 ‘산업기술보호’라는 특정 주제로 집중된 이유가 산업보안 개념을 산업기술보호로 축소해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보안은 매우 다양한 영역과 분야로 이뤄져 있음에도 특정 분야를 산업보안의 전부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산업보안 연구에서 산업보안 개념은 모호하고 부정확하고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보안 개념을 논리적 명확성과 경험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히 인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산업보안, 개념화, 안전, 보안, 산업기술보호, 산업보안이론

*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고찰 III. 산업보안의 개념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IV.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산업보안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2006년 ‘산업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연구의 증대로 연결되었다고 보인다. 이후 2008년 한국산업보안연구회가 창설되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산업보안 연구는 체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014년과 2015년 한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 각각 산업보안학과가 신설되고 이후 학과와 전공이 계속 늘어나면서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 연구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온 반면에 학문적 깊이와 체계화 역시 같이 이뤄져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학문적 체계화의 기초가 되는 이론 부분에서는 연구결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개념화를 비롯한 이론적 바탕에 대한 고민 없이 특정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실무적인 해결 방안 제시에만 관심을 가져온 셈이다.

대부분 연구에서 산업보안 개념 부분은 이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을 다시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연구자들이 독자적인 개념 정립에 대해 고민한 흔적

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물론 산업보안과 관련한 연구가 전형적인 융합학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안 연구의 주요 근간을 이루는 관련 학문들이 ‘산업보안학’이라는 새로운 토양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점이 산업보안의 학문적 발전을 더디게 하는 제약 요건이 될 수 있다(이창무·김민지, 2013: iii).

실제로 산업보안 개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판적 연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기존 산업보안 관련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산업보안 개념의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검토한 연구 역시 거의 없다. 산업보안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검증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보안이 학문적 정체성을 갖고 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중구난방(衆口難防)식 산업보안 개념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논리적 명확성과 경험적 타당성을 갖춘 산업보안 개념을 제시해야 하며, 여기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존 산업보안 관련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보안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학문적 연구에서 이론 및 개념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찰한다. 산업보안관련 연구에서 산업보안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연구에서 개념화 및 개념 정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논리적 신뢰성과 경험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산업보안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학술정보 검색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논문 제목에 ‘산업보안’이 명시된 학술논문 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해 활용한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eArticle, DBPIA, KISS, KERIS, KyoboScholar, Newnonmun, Google 학술검색이다. 이러한 검색 DB를 통해 각각의 논문에서 산업보안 개념이 어떻게 제시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제시된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논문제목에서 산업기술 유출이나 산업기술 보호 등을 제외한 이유는 논문 제목 자체로 알 수 있듯이 연구 방향이 산업기술 유출이나 보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을 학술 논문으로 국한하고 학위논문을 제외했다.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의 경우 관련 내용을 일반 학술지에 게재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측면에서 학

술지 게재 논문에 한정했다. 기존 학술 연구논문 내용 자체를 1차 자료(primary data)로 삼아 문헌연구 방법에 입각해 분석했고, 개념 용어 사용의 빈도 등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Ⅱ. 이론적 고찰

1. 이론화와 개념화

산업보안이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산업보안의 이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론이란 ‘광범위한 경험적 사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추상적인 해석을 구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앤서니 기든스, 2009: 25). 이론은 무슨 자료를 사용할 것인가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여 현상을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상호 관련성을 갖게 한다. 아울러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편화시키고 체계화하며, 사실을 예측하며, 지식의 문제점을 지적해준다(이창무·김민지, 2013: 3-4에서 재인용). 이론이 필요한 이유는 존재하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사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론화는 사실 전달과 상황 파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셈이다. 결국 인식론적(epistemological)인 측면과 존재론적(ontological)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론은 ‘개념’이라는 렌즈를 통해 현상을 관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하지만 렌즈의 시야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간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이론은 완결된 것이 아니며, 늘 비판적인 검토와 재구성의 대상이 된다. 이론은 많은 이해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롭고 다른 이해방식이 나타나면 논쟁과 검증 과정을 거쳐 기존 이론이 존속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변증법적 과정들이야말로 과학지식이 소통 및 축적되는 논리적 과정인 것이며, 동시에 과학 공동체의 이론화 기능인 것이다(Edmondson & Mcmanus, 2007).

이론화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개념화라고 할 수 있다. 개념화는 개념을 만드는 것으로, 특정 용어들을 사용할 때 의미하는 것을 특정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조너선 터너(Jonathan Turner)는 개념을 ‘이론의 기본적

인 건축용 블록들'로 표현했다(Turner, 1974: 5). 개념이란 현상에서 사고와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 특수한 부분을 용어로 표시해 놓은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개념은 정신적 관념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된 상징이다. 개념은 현상 그 자체는 아니고 개념이 대표하는 현상을 추상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또한 정신적 관념을 공유하기 위해 개념을 사용한다(이창무·김민지, 2013: 10에서 재인용).

개념화를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이 배타성(exclusiveness)과 포괄성(exhaustiveness)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독립된 개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개념이 학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개념과 중복되지 않고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exclusive), 또한 그 개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괄적(exhaustive)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정부는 국회나 법원이 포함되면 안 되는 반면에 국방부, 외교부 등 주요한 부처가 행정부 개념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다. 법학 안에 기계공학은 들어 갈 수 없지만, 헌법, 형법, 민법, 상법 등은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산업보안 역시 다른 개념과 중복되지 않고 독립적인 요소만을 포함해야 하고, 산업보안에 당연히 포함해야 하는 요소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 개념들이 철저하게 연구자의 논리적 사유에서 생성된다는 점에서 모더니즘과 행태주의(behavioralism)에서 주장하는 객관성은 인정받기 어렵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념 자체가 렌즈와 같이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영고불변한 절대적인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며, 새로운 사실과 인식 변화에 바탕을 둔 개념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국가 주권의 개념이 왕권에서 국민 주권으로 바뀌는 것처럼 상황의 변화는 개념의 변화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2. 산업보안

산업보안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보안이 산업과 보안이 합쳐져 만들어 졌다는 점을 감안해 각각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산업이란 사전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기 위하여 하는 일” 또는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직, 농업·목축업·임업·광업

· 공업을 비롯한 유형물(有形物)의 생산 이외에 상업·금융업·운수업·서비스업 따위와 같이 생산에 직접 결부되지 않으나 국민경제에 불가결한 사업도 포함하며, 좁은 뜻으로 공업만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실상 경제활동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이창무, 2011: 80).

보안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security(보안)’과 ‘safety(안전)’의 개념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security(보안)’과 ‘safety(안전)’의 개념상 차이는 ‘인위성’여부에 달려있다. 즉, 위협이나 위협이 ‘의도적(intentional)’이나, ‘우연한(accidental)’ 것이냐에 따라 ‘security(보안)’과 ‘safety(안전)’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security(보안)’은 ‘의도적(intentional)’인 위협·위협과 관련되며, ‘safety(안전)’은 ‘우연한(accidental)’ 위협·위협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ecurity(보안)’은 사람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국가안보 기밀이나 산업기밀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사람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안의 영역에 속한다.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는 물론이고 사기, 횡령, 명예훼손 등 모든 범죄 역시 사람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는 노력은 당연히 보안의 범주에 들어간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변수가 불법 여부, 즉 ‘범죄’가 개입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위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범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산업기밀 유출이나, 강도, 절도와 같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실화(失火)나 과실 치상과 같은 과실 행위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인위적 행위에 의한 피해는 범죄와 관련된다(이창무, 2011: 77). 보안 개념에 있어서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보안은 단순히 실수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이장국, 2007: 32).

때문에 ‘safety(안전)’은 ‘우연한 피해(accidental harm)’를 방지하고, 탐지하고, 대응하는 노력과 관련되는데 반해 ‘security(보안)’은 ‘악의적 피해(malicious harm)’를 방지하고, 탐지하고, 대응하는 노력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Firesmith, 2003: viii).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산업보안 전문가인 로렌스 페넬리(Lawrence J. Fennelly) 역시 범죄예방을 보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Fennelly, 1999: 3).

옥스퍼드 영어사전(The Oxford English Dictionary)도 ‘security’를 “위협과 위협

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The state of being free from danger or threat)”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테러, 절도, 또는 간첩행위와 같은 범죄 행위(criminal activity such as terrorism, theft, or espionage)에 대한 정부나 조직의 안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픈 인터넷 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 또한 ‘security’를 “폭행, 절도 또는 공공 기물파손과 같은 의도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위험과 관련된다(security addresses the risk of harm due to intentional criminal acts such as assault, burglary or vandalism)”고 적시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에서 security와 safety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각각 ‘보안(保安)’과 ‘안전(安全)’으로 번역하는 오류를 범해 개념상의 혼란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학자는 주역(周易) 계사전의 구절로부터 ‘안전’이라는 단어가 구성,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면, 외래문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safety’의 번역어로서 ‘안전’이라는 낱말을 선택하게 됐다고 추측하기도 한다(이장국, 2007: 33). 사실 용어를 자주 자체로 해석하더라도, 보안은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이 보안보다 더 선행되는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이란 ‘정태적(靜態的)’ 의미이고 보안이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동태적(動態的)’이고 ‘적극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보안과 안전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fety’를 ‘안전’으로 번역하면서 개념상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국민안전처의 영문 명칭이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로 표기된 이 유도 국민안전처가 담당하는 안전 업무가 ‘safety’와 ‘security’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영문 명칭이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으로 되어 있는 점 역시 같은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한영사전도 비슷하다. 네이버 한영사전은 ‘안전’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safety’와 ‘security’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안(security)’이란 “범죄와 같은 악의적이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생명, 재산 등 각종 자산을 지키고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과 보안의 개념을 바탕으로 산업보안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범죄행위로부터 모든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제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무형의 모든 산업자산을 불법행위로부터 지키는 ‘자산보호(asset protection)’와, 산업자산의 피해를 막는 ‘손실방지(loss prevention)’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보안에 대한 개념 정의는 산업보안에서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은 미국산업보안협회(ASIS)가 자산보호(POA: Protection of Assets)를 산업보안의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Cunningham과 Taylor(1985)를 비롯한 산업보안 관련 연구자들이 오래전부터 산업보안을 자산보호와 손실방지 개념에서 접근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산업보안 개념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Ⅲ. 산업보안의 개념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1. 개념화의 모호성

산업보안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점은 심각하다. 개념이란 연구에서 있어서 원료와 같기 때문이다. 원료가 잘못되면 제품의 품질이 좋을 수 없는 것처럼, 개념 정의가 잘못되면 이후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개념화는 이후 조작적 정의를 통해 연구를 설계하고 분석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산업보안의 영역을 지나치게 좁게 제한하거나 아니면 산업보안과 관련 없는 다른 영역으로 정의한다면 연구 방향 자체가 잘못 되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학술지 게재 논문 가운데 제목에 산업보안이 포함된 논문은 대략 47편으로 집계된다. 학술 DB 검색결과, 산업보안 제목을 가진 학술지 게재논문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9년이다. 사실 ‘산업보안’이란 제목을 가진 학술 연구는 2002년 민병설의 ‘산업보안체계의 정립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 박사학위논문이기 때문에 본 연구 내용에서는 제외하였다. 산업보안을 제목으로 하는 연구는 대부분 2010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산업보안을 논문 제목으로 설정한 전체 47편의 연구 논문 가운데 산업보안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러한 개념 정의에 입각해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산업보안이라는 학문 분야 역사가 짧다는 점을 들어 “산업보안은 아직 학문적 개념이 정립된 용어가 아니다”, “산업보안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개념 정의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학문의 역사가 짧은 게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아도 되거나 미뤄도 되는 면책 사유

는 될 수 없다. 이미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지적했듯이 학문이란 명확한 개념화와 이에 기초한 이론적 바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화가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다면 산업보안은 학문의 영역이 아닌 셈이다.

문제는 산업보안을 제목으로 설정한 많은 연구들이 산업보안 개념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선행 연구의 개념 정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최순호·정우일(2009; 정덕영·정병수, 2010; 고준철외, 2010; 이하섭·조현빈, 2012; 김금중·조성구·김동제, 2014; 문훈주·천이수·송봉규, 2014; 정성배·박준석·최영호, 2015; 강주영·이환수, 2015). 노호래(2008)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비록 제목에 산업보안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후 산업보안 개념과 관련해 많이 인용한 연구이다.

노호래(2008)는 “산업보안이란 첨단기술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모든 정보나 인원, 문서, 시설, 자재 등을 산업스파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특정한 관계가 없는 자에게 누설 또는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 관리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산업보안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노호래, 2008: 50). 산업보안을 산업기술보호와 거의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산업보안 정의를 수정 없이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산업보안실무’ 교재를 통해 산업보안을 “산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모든 정보나 인원, 문서, 시설, 자재 등을 산업스파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특정한 관계가 없는 자에게 누설 또는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 관리하기 위한 대응방안이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가정보원, 1999: 1). 따라서 노호래(2008)의 산업보안 개념 정의를 그대로 적용한 산업보안 관련 많은 연구들은 사실 국가정보원의 개념 정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산업기술 보호 역시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에만 주력할 뿐이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 및 조직에서 행해지고 있는 산업보안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보편화된 개념과도 다르다. 물론 ‘배타성’과 ‘포괄성’ 원칙에 입각한 개념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최선태(2010)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보안에 대한 정의가 없다보니 산업기술보호(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와 산업보안(industrial security)을 일반적으로 혼용하는 경향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도 산업보안과 산업기밀보호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고 더불어 산업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직능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다 보니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최선태, 2010: 224).

하지만 진정한 문제점은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다거나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라면서 개념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명확한 개념화를 위해 산업보안의 개념에 대해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선행 연구의 개념 정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로 가는 줄 모른 채 무작정 앞서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 개념의 축소

개념화의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보안 개념에 대한 일반적 오류는 산업보안 개념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보안을 산업기술보호의 개념으로 한정해서 개념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화에 있어서 ‘포괄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일반화의 오류이다. 산업보안을 학술지 논문 제목으로 설정한 전체 47편의 연구 논문 가운데 산업기술보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37편이다. 무려 79%로 10편 가운데 8편 가량이 산업보안을 산업기술보호에 국한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논문 제목에 ‘산업기술유출’과 같이 산업보안과 관련되지만 ‘산업보안’이란 단어를 포함하지 않은 연구들을 포함한다면 산업보안관련 연구의 거의 대부분이 ‘산업기술보호’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산업보안’ 제목 설정 연구의 주제별 분류

주제	건수
산업기술보호	37
정보보호	4
기타	6
합계	47

상당수 연구는 개념 정의를 통해 이창무(2011)의 분류와 같이 산업보안을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막상 연구 내용은 산업기술보호에 국한된다(남재성, 2012; 김현동·이영일, 2014; 조용순, 2014; 김창호·유재환, 2015; 우광제, 2015; 정성배·박준석·최영호, 2015). 국내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이 산업기술보호를 중심으로 형성돼 왔기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국가정보원이 초기 산업보안을 산업기술보호와 혼용해 사용해왔던 이유도 상당부분 작용한다고 보인다. 특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제정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되어 왔다.

산업보안을 산업기술보호로 축소 연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병수·류상일·김화수(2012) 역시 “산업보안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하여 산업보안의 많은 영역을 제외시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산업보안 연구에서 등장하는 핵심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중에서 가장 출현이 빈번했던 단어가 ‘산업기술(25회)’이라고 제시하여 산업보안 연구가 산업기술보호 중심으로 이뤄져 왔음을 밝혔다(정병수·류상일·2012: 209).

최선태(2010)도 산업기술보호는 산업보안의 다양한 영역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산업보안과 산업기술보호가 혼용해서 사용될 용어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 산업보안협회(ASIS)의 조직구성을 보더라도 산업기술보호는 산업보안의 많은 분야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과의 다양한 차이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업보안 분야는 매우 미시적이고 지역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최선태, 2010: 225).

산업보안을 제목에 담고 있는 여러 연구들이 산업보안 전문 인력, 산업보안 교육 훈련, 산업보안 정책, 산업보안 인식, 산업보안관리활동, 산업보안 역량, 산업보안 담당자, 산업보안 패러다임, 산업보안 분야, 산업보안 범죄, 산업보안 문화, 산업보안 발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막상 연구 내용은 대부분 ‘산업기술보호’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보안을 협의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우 결국 산업기술보호와 산업보안의 개념의 구분이 어려워지고(조용순, 2014: 186-187), 그렇다면 굳이 산업보안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산업보안의 대상을 정보자산에 국한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보안 분야를 정보보안 분야와 동일시하거나(황윤희·정호준·유진, 2015; 김형근·안상희, 2014), 산업보안의 개념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국가 및 개인의 중요한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행동’

이라고 정의하는(정성배·박준석·최영호, 2015) 경우도 있다. 산업보안이 비단 정보 자산만이 아니라 인명, 시설, 장비 등 다양한 자산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개념 정의 역시 ‘포괄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산업보안을 지식 재산의 개념으로 축소하거나(임현욱, 2015), 영업비밀과 동일시(김문선·전대성·남경현·김규로·한찬명, 2013)하는 연구 사례도 있다.

그러나 <표 2> 미국의 산업보안 분야에서 보듯이 산업보안의 영역과 분야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산업보안 연구에 있어서 산업기술보호와 정보보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산업보안 개념을 ‘산업기술보호’로 축소하고 제한하기 때문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자금횡령이나 사업연속성관리 (BCP), 컴플라이언스와 같은 산업보안의 중요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표 2> 미국의 산업보안 영역 분류 및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	Border Security(국경 보안)
	Government Agencies(정부 기관)
	Policy & Regulation(정책 및 규제)
	Terrorism(테러리즘)
Physical Security (물리 보안)	Architecture & Engineering(설계 및 공학)
	Employee Management(직원 관리)
	Fraud/White Collar Crime(부정/화이트칼라 범죄)
	Guard Force Management(경비원 관리)
	Intrusion & Access Control(침입 및 출입 통제)
	Investigations(조사)
	Perimeter Protection(외곽 보호)
	Supply Chain(공급망)
Surveillance(감시)	
CyberSecurity (사이버 보안)	Cloud Security(클라우드 보안)
	Cybercrime(사이버 범죄)
	Defenses(국방)
	Mobile Security(모바일 보안)
	Social Engineering(사회공학)

Strategic Security (전략기획 보안)	Enterprise Risk Management(기업 위험관리)
	Resilience(복원력)
	CSO/Leadership(CSO/리더십)
	Legal Issues(법적 이슈)
Security by Industry (산업별 보안)	Public/Private Partnerships(공공/민간 협력)
	Construction(건설)
	Education(교육)
	Emergency Services(응급 서비스)
	Financial Activities(금융)
	Government(정부)
	Healthcare(보건)
	Information(정보)
	Leisure and Hospitality(여가 및 관광)
	Manufacturing(제조업)
	Museums and Cultural Properties(미술관 및 문화시설)
	Natural Resources and Mining(천연자원 및 광업)
	Pharmaceutical(제약)
	Security, 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보안, 전문가 및 기업 서비스)
	Transportation(교통)
	Utilities(유틸리티)
Wholesale and Retail Trade(도매 및 소매 유통)	

출처: 'Security Management' 홈페이지(<https://sm.asisonline.org>)

I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보안 연구에서 산업보안의 개념은 모호하고, 부정확하고,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학문의 역사가 짧은 하지만, 엄연히 학문 분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단순히 학문 역사가 짧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면 학계 연구역량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는 고백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회사 역사가 짧아 제대로 된 물건을 팔 수 없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논문을 위한 논문을 찍어내는 것”과 같이 연구의 양적 성과만을 강조하는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인 학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일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난 산업보안

연구의 양적 팽창이 마냥 반가울 수 없는 이유이다.

산업보안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산업보안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연구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국 산업보안 개념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선행 연구에서 적용한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다보니 방향성 없이 한 곳으로 쏠리는 문제점을 낳았다. 산업보안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산업기술보호에 집중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보인다. 산업보안 개념을 산업기술보호로 축소해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분야가 전체로 잘못 인식돼 이러한 과다 집중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산업기술보호가 산업보안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산업보안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산업기술보호가 산업보안의 전부라 아님에도 “산업보안 = 산업기술보호”라는 잘못된 등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산업보안 분야에서 보듯이, 산업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고 그 중요성 또한 적지 않음에도 국내 학계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식 없이 극히 일부 분야를 산업보안의 전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수천 년 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바다 건너 또 다른 대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산업보안을 제목으로 설정한 모든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전수(全數)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산업보안관련 교재, 학위 논문 등에서도 산업보안 개념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보안 개념을 설명한 모든 문헌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개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다뤄야 할 과제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주영·이환수 (2015). 산업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 방안, 한국산업보안연구, 5권 2호, 85-116.
- 고준철·김태수·주용마·김우현·강경식 (2010). 산업보안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위험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2권 4호, 1-11.
- 국가정보원 (1999). 산업보안실무, 국가정보대학원.
- 김금중·조성구·김동제 (2014). 산업보안 민간조사원의 직무 모델, 한국산업보안연구, 4권 2호, 175-203.
- 김문선·전대성·남경현·김규로·한찬명 (2013). 산업보안 역량 수준평가 및 개선방안, 품질경영학회지, 41권 4호, 649-657.
- 김창호·유재환 (2015). 산업보안 지원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2호, 155-178.
- 김현동·이영일. (2014). SNS시대의 테러리즘 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발전방안, 한국테러학회보, 7권 4호, 81-103.
- 김형근·안상희 (2014). 산업보안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환경 설계 방안, 한국산업보안연구, 4권 2호, 241-261.
- 남재성 (2012).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실태와 대책: 법·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6호, 43-75.
- 노민선·이삼열 (2010).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에 대한 영향요인 평가, 한국행정학보, 44권 3호, 239-259.
- 문훈주·천이수·송봉규 (2014). 일반 국민들의 산업보안 인식에 관한 연구: 산업보안정책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4권 2호, 81-118.
- 앤서니 기든스 지음, 김미숙외 옮김 (2009).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 우광제 (2015). 융합보안 관점에서 방위산업보안 개념 정립과 연구동향 분석, 융합보안논문지, 15권 6호, 69-78.
- 이장국 (2007). 안전에 대한 용어적 및 어원적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22권 2호, 28-35.
- 이창무 (2011). 산업보안의 개념적 정의에 관한 고찰, 산업보안연구학회지, 2권 1호, 73-90.
- 이창무·김민지 (2013).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 이하섭·조현빈 (2012).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산업보안 활동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호, 199-228.

- 임현욱 (2015). 산업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보안 교육방안 고찰, 보안공학연구논문지, 12권 6호, 597-608.
- 정덕영·정병수 (2010). 대학내 산업보안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권 5호, 314-324.
- 정병수·류상일·김화수 (2012). 산업보안의 연구경향 분석: 학술연구정보서비스(2000년~2011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9권 2호, 195-215.
- 정성배·박준석·최영호 (2015). 산업보안관리활동이 기업의 보안성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14권 4호, 521-538.
- 조용순 (2014).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0호, 175-207.
- 최선태 (2010). 산업보안 전문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2권 4호, 221-255.
- 최순호·정우일 (2009). 경찰의 산업보안 활성화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1권 1호, 227-252.
- 최영호 (2015). 조직문화가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산업보안정책 준수율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7권 6호, 343-366.
- 황윤희·정호준·유진호 (2015). 다면평가제도의 산업보안 분야에 대한 활용방안과 효과성 분석, 한국산업보안연구, 5권 2호, 117-140.
- Cunningham, William C. & Todd H. Taylor. 1985.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Boston: Butterworth-Heinemann.
- Edmonson, A. C. and S. E. McManus (2007). Methodological Fit in Management Field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2, No. 4, 1155-1179.
- Fennelly, Lawrence J. (1999). Handbook of Loss Prevention and Crime Prevention, Boston: Butterworth-Heinemann.
- Firesmith, Donald G. (2003). Common Concepts Underlying Safety, Security, and Survivability Engineering, Pittsburgh, PA: Carnegie Mellon University.
- Turner, Jonathan. (1974). The Structure of Sociology Theory, Homewood, IL: Dorsey.

【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Industrial Security Concepts

Lee, Chang-Moo

Industrial security research has shown a rapid increase over the past decad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 in 2008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s of industrial security in recent years, academic interests and research on industrial security are also spreading at a rapid pace. Although academic interest and research have grown in quantitative terms, research on theoretical fields that are the basis of academic systematization is extremely limited. There is a focus on the issue of specific issues and practical solutions without worrying about the theoretical basis including conceptualization. Therefore, in most studies, the concept of industrial security remains at the level of accepting the concept applied in the previous research. Most industrial security research focuses on the specific topic of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because it considers the concept of industrial security to be reduced to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lthough industrial security is composed of a wide range of fields, recognizing a specific field as an entirety of industrial security appears to be a serious problem. As a result, the concept of industrial security in industrial security research is being used ambiguously, incorrectly, and conveniently.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and recognize the concept of industrial security based on logical clarity and empirical feasibility.

Keywords: Industrial Security, Conceptualization, Safety, Security,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Industrial Security Theory